

KT, 미래형 시타워 송파빌딩 가동

빌딩관리부터 업무까지 전 영역 디지털 기술 도입



KT는 엔터프라이즈와 AI(인공지능)·DX(디지털전환)융합사업 부문을 최근 완공한 KT송파빌딩(사진)으로 이전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송파에 위치한 KT송파빌딩은 오피스동과 호텔동으로 나뉜다. 오피스동은 지하 5층, 지

상 28층 규모로 KT는 4층부터 16층까지 13개 층을 사용으로 사용한다. 호텔동은 지하 5층부터, 지상 32층 규모이며, 소피텔이 입주한다.

KT송파빌딩은 에너지·실내공기·보안·안전같은 빌딩관리부터 사원증·우편배송·좌석예약·헬스케어 등 업무 및 복지 전 영역에 AI·로봇·미디어·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와 기술을 집약시킨 미래형 AI 타워다.

KT는 오피스동과 호텔동을 포함한 송파빌딩 전체에 약 2000개의 사물인터넷(IoT) 설비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AI가 최적으로 에너지 설비를 자동제어해주는 AI 빌딩 오퍼레이터를 도입했다. 사옥 공간 내에 방역로봇이 자율주행하며 공기살균을 한다. 기존 실물 사원증 대신 블록체인 기반 DID(분산식별자)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출입증도 도입했다.

KT는 송파빌딩을 기업간거래(B2B) 비즈니스 및 외부 협력 확대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체험 소품과 로봡카페 등을 갖췄다.

한편, KT 광화문 웨스트 사옥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연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SK에코플랜트, 현장용 안전관리 앱 출시

SK에코플랜트는 13일 현장용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인 '안심, 안전에 진심(이하 안심)'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심'은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쉽게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앱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간단한 회원가입을 통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근로자와 안전 관리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손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안심은 크게 ▲나의현장 ▲근로자이력 ▲작업허가서 ▲안심톡 ▲위험성평가 ▲안전신문고 등 6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을 통해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당일 작업의 위험도, 팀원 현황, 안전수칙 등 주요 점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베타테스트를 마치고, 최종 업데이트를 통해 10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Q&A로 알아본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내년부터 삼성전자 주식 1만 원어치 거래 가능”

내년 3분기 내 국내주식도 해외주식처럼 소수점 단위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주식 권리 분할이 가능한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통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와 관련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1주를 쪼개거나 금액단위 구매 가능
고액 우량주 분산투자...접근성UP
신탁제도 방식...실시간 거래 불가
온주 전환 시 의결권 행사할 수 있어

Q. 주식 소수점 거래는 무엇인가.

A. 온주(온전한 주식 1주) 단위의 주식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처럼 소수점 단위로 쪼개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13일 종가 기준 7만6300원인 삼성전자 주식을 0.1주씩 거래한다면 7630원으로 매수와 매도가 가능해진다. 삼성전자 0.5주를 갖고 있다면 0.3주를 팔고 0.2주를 보유할 수도 있다. 또 주식을 주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로 살 수 있어 삼성전자 주식을 1만 원 또는 10만 원 규모로 구매할 수 있다.

Q. 이 제도의 장점이 있다면.

A. 소위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이라 불리는 무리한 투자가 아닌,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해 있는 고액 우량주에 분산 투자할 수 있



2022년 3분기 내 신탁제도를 통한 국내주식의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사진은 코스피 3127.86으로 장을 마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주식 전광판.

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2030세대 소액투자자들이 주식 소수점 거래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비교적 수익률이 좋은 고액 주식은 자산가들이 접근해 높은 수익을 내는 반면, 소액투자자들은 접근하기 쉬운 테마주와 급등주를 쫓다 손실을 입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또 적은 금액으로도 다양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포트폴리오 투자기법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Q.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궁금하다.

A. 주식 권리 분할이 가능한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해 온주로 만들어 자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가령 A투자자, B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각각 0.3주, 0.6주 산다면 증

권사가 0.1주를 채워 온주로 만드는 것이다. 또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 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Q. 기존 시스템과 차이점이 있다면.

A. 신탁제도 방식이기에 실시간 거래 불가능하다는 게 단점이다.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0.6주 구매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지분 0.4주를 채워 1주의 온주를 만들고 이를 예탁결제원에 신탁해 투자자들이 쪼개진 수익증권을 받아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실시간 거래가 어렵다. 하루 1, 2회 정도의 거래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온주 거래를 할 때는 기존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낫다.

Q.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방법은 없나.

A. 현재 상법 제329조에서는 주식을 1주리는 균일한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나의 단위를 더 세분화할 수 없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실시간 거래까지 가능한 '완전한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 개정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다. 신탁제도는 현재 제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Q. 의결권 행사와 배당은 어떻게 되나.

A. 상법상 의결권은 1주마다 1개가 부여되기에 소수점 거래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주주로서 권리를 갖지 못한다. 대신 주식을 신탁받은 예탁결제원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다만 여러 차례 소수점 거래를 통해 3.6주를 가지게 된다면, 증권사와 계약을 통해 온주단위로 전환해 3주에 대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배당의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에 비례해 받을 수 있다.

Q. 소수점 최대 몇 자리까지 거래할 수 있나.

A.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대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가능해 보인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해외 소수점 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의 경우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매매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 주식도 증권사 전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Q. 모든 종목이 소수점 거래가 되나.

A. 향후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 등 대형주부터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정욱 기자 jiyaj@donga.com

“수준높은 심혈관질환 진료”...심장내과 전문 ‘전희경 성모하트 내과의원’ 개원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의정부 '전희경 성모하트 내과의원' (대표원장 전희경)이 6일 개원했다.

진료 과목은 심혈관 질환 및 위장 질환(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부정맥, 당뇨병, 심부전, 고지혈증, 대사증후군)이다. 각종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해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희경 대표 원장은 대학병원에서 25년간 심장내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대한심장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대한심혈관 중재시술학회, 심부전학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는 2004년부터 심혈관센터 센터장을 맡아 급성 심근경색증, 불안정협심증 등의 관상질환자에 대한 응급시술을 포함해 많은 심혈관중재시술을 실시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심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계속 힘쓸 계획이다.

전희경 대표 원장은 “대학병원은 진료나 검사의 접근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며 예약날짜를 놓쳤을 때 진료를 보는 것이 어렵다”며 “환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심장내과를 개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치료와 예방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의 좋은 동반자로 지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성모하트 내과의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목요일 제외)까지 운영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진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하나투어, 10월부터 전 직원 정상근무
하나투어는 10월부터 전 직원 정상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해 4월부터 필수근무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 유·무급 휴직을 실시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하나투어는 최근 백신접종률 상승 추세 및 정부의 위드코로나 전환 검토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해외여행 시장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상근무 전환과 함께 급여도 정상 지급한다. 하나투어는 1200여 명의 직원 중 휴직자를 제외한 1100여 명이 정상근무 체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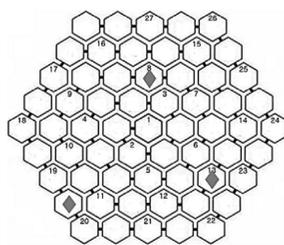
■ 스토쿠문제

6			7	2			3
		5			6		
	3		1	5		9	
5			2		4		
3		9	7		1	2	6
		1	6				9
	7			1	8		3
		8				1	
1			5	9			7

■ 스토쿠정답

7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5	8	6	1	2	9	7	4
6	2	9	5	9	7	1	8
9	5	2	1	8	7	6	3
1	8	7	6	5	4	3	2
8	2	9	1	8	7	6	5
3	4	5	6	7	8	9	1
4	3	2	1	9	8	7	6

■ 낱말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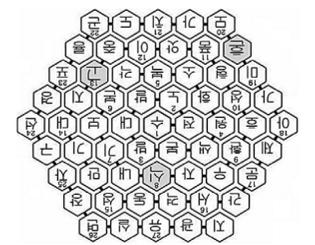
■ 열쇠

01.몹시 인색한 사람. 02.몹시 성을 낸. 03.페단이 되는 근원을 아주 없애 버림. “발○색○” 04.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임. 05.복각한 판으로 박아낸 인쇄물. 06.본으로 보여 줄 만한 것. 07.여객기 안에서 손

남에게 주는 음식. 08.글자를 아는 것이 도리어 근심을 사게됨. 09.기빠서 부르짖는 소리. 10.성형 가공을 하여 만든 물품. 11.일을 서로 거들어 주며 품을 지고 깔고 하는 일. 12.한꺼번에 겹치거나 거듭되는 고통. 13.높은 지대. 14.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 15.적을 유인하여 이쪽을 공격하는 체하다 반대쪽을 치는 전술. 16.상대편에게 경어. 자신은 겸양의 말을 쓰는 편지에 쓰는 문체. 17.학교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학생. 18.어류의 호흡기관. 19.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가진 어머니. 20.뭍으로 돌아오는 물건. 21.몹시 혼남. 22.임금이 입던 장복. 23.고래를 잡기 위해 설비를 갖춘 배. 24.어떤 일에서 다른 사람보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칸을 이어놓으면 결혼기념식(2주년) 명칭이 됩니다.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